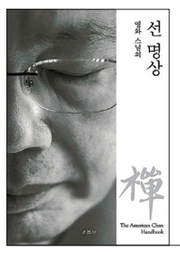


지난 3월 30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선명상 다르마톡' 법회에서 영화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미국스님이 전하는 친절한 명상법문들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영화 스님 법문
윤희조 · 박재은 옮김
운주사/ 1만5000원

지난 3월 28일 20여 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미국 위앙종 영화 스님의 저서가 잇달아 출간됐다.

운주사에서 발간한 〈영화 스님의 선 명상〉은 영화 스님이 주창하는 '아메리카 선'의 면면을 살필 수 있다. 미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전한 '아메리칸 선'은 전통적인 선 수행 방법에 현대인들의 생활환경을 감안해 변용시킨,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행법이다. 이는 서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 한국의 수행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책은 '선 명상'을 말한다. 이는 대승불교의 참선수행이다. 선수행의 목적은 깨달음, 즉 견성이다. 따라서 명상의 진정한 목적이 깨달음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건강이나 업무에 도움을 받는 기술 습득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궁극적 목적인 깨달음을 향해 수행해가면, 당연히 삶의 실제적인 이익들은 따라오게 된다. 선이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가장 직접적인 길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좋은 스승, 올바른 선지식의 도움과 지도가 절대적일 정도로 필수적이다. 하지만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영화 스님의 말처럼, 이 책이 결코 그처럼 중요한 스승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런 스승을 찾을 때까지 수행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은 혼자 명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즉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고 폭넓게 설명한다. 특히 좋은 스승과 복덕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전자는 당연해 보이지만 후자의 강조는 기존의 선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 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결가부좌 수행이다. 이는 저자의 직접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학인들을 지도하면서 검증한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결가부좌는 결코 쉬운 자세가 아니다. 익숙해지기까지 꽤나 고통스러운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고통을 감내한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사례들이 실려 있어 믿음을 더해준다. 신중일 기자



복 있는 당신께, 다르마 톡
영화 스님 지음
대지 · 상욱 · 현안 · 현공 옮김
어의운하/ 1만7000원

어의운하에서 발간한 〈복 있는 당신께, 다르마 톡〉은 영화 스님의 첫 대중 법문집이다. 스님이 활동하는 미국에서도 공식 출간된 적이 없는 대중 법문집이어서 스님이 대중들에게 선과 정토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주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명상, 관음보살 염불, 참회, 약사 부처님, 사십구재 등 한국의 불자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영화 스님이 한국의 대승불교와 같은 대승법을 수행했기에 가능한 주제다. 그렇다고 법문이 비슷하지 않다.

흔히 말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식의 조언을 영화 스님은 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의 머리에 총을 대고 있는데, "뭐, 괜찮아. 걱정하지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영화 스님은 이 같이 말한다.

"농담하나요? 미쳤어요? 선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머리에 총을 겨누면, '오! 오!'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게 우선 하는 행동입니다. 다음의 행동은 뭔가요? 가능성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방아쇠를 당긴다면 나에게 생길 최악의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그 걱정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영화 스님은 법문 주제는 낯설지 않지만,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한국 불자들에게는 새롭다.

이 책은 영화 스님의 명상을 접한 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도 엿볼 수 있으며, 낮은 단계의 명상이 주는 이익과 가장 높은 단계의 명상인 대승명상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사례와 단계별 구체적 현상의 모습을 들려준다. 특징적인 것은 영화 스님은 명상시 결가부좌를 강조한다. 처음 결가부좌를 할 때 채 10분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복 짓는 방법의 설명은 익숙하면서 새롭다. 영화 스님은 복을 다섯 가지로 나눈다. 장수, 돈(부), 좋은 명성, 안락, 건강 등이다. 이 다섯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이 복을 짓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첫째는 보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이에게, 계를 수지한 이에게, 생각 없이 무념으로 보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계를 지키는 것이다. 셋째가 가장 높은 수준의 복 짓는 방법인데, 선(禪)을 하는 것이다. 신중일 기자

매듭으로 한 길 걸은 장인 인생 역정 담다



멋과 품격의 예술 매듭
박양자 지음
온샘
2만5000원

"지금 와서 돌아보니 아무 것도 모르고 20대 초에 선택한 매듭의 길은 순조롭지 않은 힘든 길이었다. 한때는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 후회도 했다. 그러나 그 길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구도자의 심정으로 인고의 시간을 견디어 내면서 묵묵히 자신을 극복해온 과정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매듭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박물관이 아닌 매듭 장인의 길을 선택한 박양자 선생은 최근 발간한 저서 〈멋과 품격의 예술 매듭〉에서 자신의 삶을 이와 같이 정리한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최선일)가 기획한 현대 장인열전의 중 첫 번째 시리즈인 이 책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옛 전통을 복원, 계승하고 있는 현대 장인들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책은 저자 박양자의 삶의 기록이자 매듭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매듭장을 관리하는 등 크게 번성했지만 19세기 이후 개화와 서양문물의 유입은 전통매듭의 쇠퇴를 가져왔고 현재는 일부 매듭장을 중심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옛날 선조들의 초상화와 엽서 사진 속에는 전통 매듭이 종종 등장한다. 매듭은 선조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 저자는 초상화와 엽서 사진 속의 매듭을 저자가 재현한 매듭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생활 속에서 매듭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고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집과도 같은 책이다.

1장에서는 매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 속의 매듭과 명주실의 천연염색과정, 끈목 짜는 도구들, 동다회, 광다회 짜는 기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매듭의 종류, 술의 종류, 제작과정 등을 살핀다.

2장에서는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매듭의 쓰임을 근대 엽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엽서에 보이는 매듭을 저자의 작품과 비교하여 사진으로 실었다.

3장에서는 20대에 김희진 선생님을 만나 이수자로서 매듭의 외길을 시작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교육하면서 매년 여러 전시회 작품 준비, 60대에 개인전 및 초대전을 하고 매듭 교육 강사와 만학의 석사학위 취득 등 서로 쉽지 않았던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본다.

신중일 기자

금강경, 소설로 만나다



소설 금강경
백금남 지음
피플웨치
1만8000원

'약견제상비상즉견여래.(若見諸相非相卽見如來)' 이는 〈금강경〉 사구게로, 모든 상이 실체가 있는 고정불변의 상이 아님을 안다면 우리는 여래를 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금강경〉은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의 소의 경전으로 인도에서 2세기에 성립된 공사상의 기초가 되는 경전이다.

문학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해온 백금남 작가가 〈금강경〉을 소설화했다. 작가는 악승 데바의 비판적 시선으로 〈금강경〉을 풀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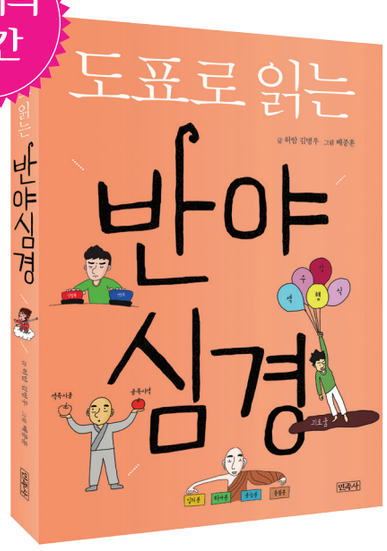
눈길을 끄는 것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붓다의 가치관이다. 이미 비어버린 붓다 안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 붓다는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준다.

신중일 기자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